

시리아 국내갈등 해결전망

The Prospect of Syrian Internal Conflict Resolution*

이 종택**
Lee, Jong-Taek

목 차

-
- I. 서 론
 - II. 다층적 갈등구조
 - III. 갈등해결 전략- 이익집단 간
 - IV. 시리아의 미래와 갈등해결전망
 - V. 결 론
-

* 본 논문은 200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2A-B00020).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Abstract |

The Prospect of Syrian Internal Conflict Resolution

Lee, Jong-Taek*

Neither al-Assad nor his enemies can hope to win an outright victory. By continuing to fight, they are simply exhausting themselves and ruining their country. Either the antagonists will persist in their life-and-death struggle, or they will decide to seek some sort of a compromise, which could save their country from possible partition.

The longer that Syria's domestic war goes on, the more fragmented the country becomes; this trajectory is accompanied by three other dangerous trends: sectarianism increasingly will become the option of choice for Syrian citizens who seek security but cannot get it from the state; revenge killings will become a more likely occurrence after Assad; and, militant Salafists will increasingly take root in local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as they prove to be well-organized and funded adversaries of the Assad regime.

In Washington, London, Paris and elsewhere, the will to overthrow President al-Assad is still there. But there is beginning to be some hesitation in helping the opposition destroy the Syrian regime.

“Military intervention will not end Syria's humanitarian nightmare. It will only change its composition both the Assad government and the rebel

* Myongji University

forces have reacted coolly, if not with hostility, to the proposals that there be talks under the joint patronage of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only solution is to seek Russia's and China's support for U.N.-sponsored elections in which, with luck, Assad might be 'persuaded' not to participate.”

For peace to return to Syria, some reconfiguring of power relationships between its different communities will evidently be necessary. The intelligence services and officer corps, dominated by Alawi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will need to be restructured so as to give moderate Muslims a greater share of power.

External powers, Arab and non-Arab, will need to put their ambitions and rivalries aside and join forces in presiding over a Syrian settlement, which will keep fanatics of all communities at bay. Ancient minorities will need to be protected.

The more than one million Syrian refugees that have fled the country will need to be brought home and rehoused. Massive financial aid, very probably from oil and gas-rich Gulf States, will need to be provided to rebuild Syria's shattered towns and villages.

The timing and nature of the transition to a new governance system in Syria remain highly speculative. I personally expected the Assad regime to have fallen by now, but clearly its staying power is great. The weakness and lack of unity of the opposition forc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a post-Assad scenario. More and more analysts expect chaos, violence, sectarian revenge killings and deep fragmentation to occur, and these become more likely with every passing month of fighting.

4 • 중동문제연구 제12권 2호

※ Key Words: Assad, Syria, USA, Syrian civil war, Ba'th, Kurd, 'Alawi, Sunni, Shi'a

I. 서론: 문제제기

시리아는 순니 아랍인 64%, 시아 분파로 알려진 알라위 13%, 기독교 10%, 드루즈 3%, 그리고 쿠르드 10%로 구성된 모자이크 사회이다. 이들 종족이나 종파들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한 채 대부분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시리아 국내갈등은 2011년 3월 발생한 반란의 전과 후로 나뉘볼 수 있다. 물론 반란 전후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반란 이후에는 국내갈등을 증폭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무력과 외세가 등장한 점이 크게 다르다 할 수 있다.

반란 이전에 시리아가 안고 있던 고질적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순니는 1950년대 까지 알라위를 억압, 차별해 왔으나 1970년 이후 소수 알라위의 장기독재정권이 다수파인 순니를 억압, 지배하는 상황으로 역전 되었다. 순니-알라위 갈등은 알라위 집권세력의 바이스 사회주의 개혁정책과 이로 인해 몰락한 순니 중산층을 대변하여 무슬림형제단이 정부정책에 저항하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아사드 정권이 형제단을 억압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둘째, 시리아 정권들은 아랍족과 쿠르드족의 통합을 기치로 아랍민족주의(Arab Nationalism)를 표방하면서 쿠르드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쿠르드의 기본권을 제한한 채 그들을 억압하고 차별했다. 그 결과 쿠르드의 정치조직이 등장했고 이들이 정부의 차별정책에 저항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2000년 사망한 하피즈 아사드(Hafiz Asad)의 아들 바샤르 아사드(Bashar Asad)는 정권세습에 성공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 영국에서 의학 공부를 한 그에 대해 국민들은 민주화를 기대했다. 2000년 ‘다마스쿠스의 봄(Damascus Spring)’ 운동으로 시작된 정치개혁요구, 2005년 10월 순니 아

랍-쿠르드 연합체인 ‘민주국민변화를 위한 다마스쿠스 선언(Damascus Declaration for Democratic National Change)’, 2006년 5월, ‘베이루트-다마스쿠스 선언(Beirut- Damascus Declaration)’ 등은 억압받던 사회에 민주화 시민사회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을 등장시켰다. 아랍족과 쿠르족으로 이뤄진 재야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이에 대한 바샤르 정권의 강경억압정책은 정부와 재야세력 간 갈등을 지속시켰다. 이러한 탄압으로 민주운동가들은 투옥되거나 해외로 도피하여 반정부 투쟁을 이어갔다.

2000년에 시작된 정부와 재야세력 간 갈등은 2011년 3월 민중혁명의 발생을 시작으로 고질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타도 행동주의 무력투쟁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주변국들과 강대국들을 포함한 이해당사국들이 시리아 무력갈등사태에 개입하면서 갈등해결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 등장했다.

정부군과 반란군 간에 2년 이상 지속된 전투에서 9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시리아는 분열 속의 실패한 국가로 전락했다. 이해당사국들이 시리아 국내 갈등문제에 자유로이 개입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어 시리아는 주권이 사라진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되었다. 이해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소수파인 쿠르드, 기독교, 드루즈는 알라위 정부군과 순니 반군 간의 갈등의 결과를 저울질하면서 생존 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이나 반란군 어느 한편의 확실한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시리아의 시민반란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저항확산에 대응해 아사드는 어떤 생존전략을 구사하면서 소수파를 정권안보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자체 분열을 겪고 있는 반란군 세력들은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갈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시리아 내전에 대해 이해 당사국들의 개입정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시리아의 갈등해결을 위한 무력 투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는 또 다른 갈등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결판이 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갈등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 글에서 이러한 몇 가지 의문 점들을 규명함으로써 시리아 내부의 고질적 갈등해결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다층적 갈등 구조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무력 갈등은 5가지의 복잡한 동시다발적 양상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시리아의 무력갈등은 아사드가의 43년 권위주의 철권통치에 대한 시민반란이며 이 반란은 자유, 권리, 존엄, 반부패를 표방하면서 아랍 전 지역으로 확산된 ‘아랍의 봄(Arab Spring)’의 영향을 받았다.

2011년 봄, 정부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폭력 시위대에게 무력진압을 시작했고 이에 맞서 조직된 반란군이 반정부 무력투쟁을 일으켜 고질적 갈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력투쟁은 이해당사국들의 개입과 지원으로 점차 증폭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백만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인근 국가로 피난했다. 이 무력갈등 역시 소수와 알라위 바이스 정권과 형제단이 주축이 된 다수와 순니 간에 일어나고 있다(Khoury, Apr.17 2013).

둘째, 시리아를 통제하려는 무력투쟁은 아랍국가에서 1950-60년대 있었던 ‘아랍의 냉전(Arab Cold War)’을 재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아랍에서 독립 후, 등장한 군사정권들은 아랍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보수 왕정전복을 시도했다. 1962년 예멘에서 발생한 군사쿠데타 세력을 이집트가 지원하고 예멘왕정세력을 사우디가 지원하면서 1962-67년 초까지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이 시기에 아랍지역에서 보수 대 혁신,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이슬람 군주 대 아랍민족주의자, 친 서방 대 반 서방 이라는 기치 하에 냉전이 지속되었으며 사우디는 보수정권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는 혁신정권을 대표하였다.

현재 아랍세계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이라크, 헤즈볼라, 이란 측과 순니 반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 카타르, 이집트, UAE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아랍연맹국가들로 분열되어있어 제2의 ‘아랍의 냉전’ 양상을 띠고 있다.

셋째, 시리아 무력투쟁은 순니와 시아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9년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탄생은 시아의 결집을 초래하였다. 이란은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라는 삼각동맹을 구축하였으며 이들은 서로 결집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중동에서 미-이스라엘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미-이스라엘은 이란의 패권도전을 좌절시키기 위해 이란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 사우디-이집트- 카타르- 터키로 이어지는 순니 국가들이 시아 아사드 정권전복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맞서 이란-헤즈볼라가 시아 아사드 정권생존을 지원함으로써 순니 정권 대 시아 정권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승리는 다른 한 쪽의 패배를 의미하여 그 결과로 인해 이 지역에 미치는 정치적 불안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넷째, 시리아 무력투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적 성격을 띠고 있어 과거의 미-소 냉전을 연상케 한다. 1990년 소련 블록이 해체된 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주도권을 행사해 왔으나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태도를 보이고 있다. 냉전 종식 후 4반세기가 지난 지금 러시아는 세계 권력관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시험대가 시리아이다. 포이도 루카노프(Fyodor Lukanov)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시민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미국의 시리아 개입은 세계 재편과 세계 지배확대를 위한 전략이라고 믿고 있다 (Goldman, June 10, 2013)

다섯째, 시리아 무력투쟁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은 무슬림형제단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족연합(The Syrian National Coalition of

Revolutionary and Opposition Force : SNC, 약칭 민족연합)의 온건이슬람세력과 세속주의 세력이 알카이다와 연계된 과격주의 ‘Jabha al-Nusra(지원전선), 시리아 이슬람해방전선(Syrian Islamic Liberation Front), 시리아 이슬람전선(Syrian Islamic Front)’ 등의 세력을 경계하는 것이다. 일례로 반군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잘 훈련된 ‘지원전선’이 아사드 이후 이슬람공화국 정권창출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시리아 정치안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리아 내전은 동시에 복잡한 다층적 양상을 띠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사드 정권과 반란군 간의 투쟁의 미래는 전적으로 반란군의 통합과 인접국들, 미국, 러시아 등의 외세에 달려있다고 본다.

III. 갈등 해결 전략: 이익집단 간

1. 아사드 정부와 소수파

1) 아사드의 전략

2011년 1월 31일, 아사드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과의 두터운 신뢰를 유지하고 있어 ‘아랍의 봄’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이념의 바탕에서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과 국가개혁을 이뤄나갈 것임을 밝혔다(*Wall Street Journal*, Jan. 31, 2011)

반란은 남부 수니거주 지역 다르아(Dar'a)에서 수니 빈곤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13세 소년 알카팁(al-Khatib)이 친구들과 벽에 아사드 하야를 요구하는 낙서를 한 후 잡혀가 사지가 절단된 채 살해되어 가족에게 전달된데 있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시위는 다르아 지역 전체로 확산

되었다(Ajami 2012, 10). 시위는 다르아, 홈스(Homs), 바니아스(Banias), 이들립(Idlib), 돔마(Domma), 라타키아(Latakia: 알라위 마을로 둘러싸인 순니 거주도시)등지로 확산되었다.

정부는 소년 살인사건 진상조사에 나서 다르아 주지사인 파이잘 칼썸(Faisal Khalsum)을 해직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니깁(niqab)을 두른 여교사의 학교출입금지규정을 해제하는 한편, 1962년 이래 아랍 바이스 당 정권이 시행한 쿠르드 시민의 권리제한과 차별을 철폐하고 시리아 태생의 30만 무국적자의 국적회복을 허용함(Kurd-Net, April 1, 2011)으로써 쿠르드의 반란군 가담을 예방하려는 정책을 구사했다.

2011년 3월 30일 아사드는 의회연설에서 반란군의 반정부투쟁을 미국과 그의 동맹세력들에 의한 고도로 조직화된 음모론으로 규정했다(Syria Comment, March 31, 2011).

4월 16일 두 번째 연설에서 아사드는 개각과 동시에 개혁정책을 발표하고 시민 시위권 합법화, 경제개혁, 1963년 바이스 정권 이래 시행된 ‘긴급조치법’해제 등을 약속했다. 이번에는 정부의 문제점, 국민의 불만, 청년실업, 부패만연, 관료의 책임의식결여 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사드는 헌법 8조에 명시된 바이스 당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 주체임을 언급한 조항에 대한 삭제 를 언급하지 않았다.

초기 시위는 수백 명에 불과했다. 시리아에서 시위는 목숨을 담보로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아사드는 1989년 이전에 동유럽과 러시아 공산당이 만든 것과 같은 경찰과 보안군을 충원했다. 보안군 65,000명을 양성하여 전 지역에 배치하였다(George, Feb. 2013).

2011년 6월 초, 사망자는 887명에 달했고 이중 절반이 다르아에서 사망했다. 아사드 정권이 시위진압, 국영방송 SANA이용, 시민에 대한 정보차단, 외신기자 입국방해 내지 감시, 사실보도 방해 등의 전략을 구사한 반면, 반란군은 모바일,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한 사실보도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냈다.

2011년 7월 29일 시위대 보호목적으로 조직된 이탈 장교들의 모임인 시리아 자유군(FSA)은 전략을 반정부 무력투쟁으로 수정했다. 여름에 시위로 3000여명이 사망하고 시리아는 내전상태에 들어갔다. 반란군은 초기에 순니 거주지역 거점확보에 주력했고 가을에 정부군은 현상유지전략을 폈다. 반란군은 홈스와 하마(Hama)를, 정부군은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방어에 주력했다.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봄까지 정부군의 전투인력부족과 반란군의 전투인력, 무기부족으로 인해 양측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유엔의 휴전 결정을 의식한 정부군이 2월 말에서 3월에 걸친 반란군에 대한 대공세를 폈다. 이 공세에 밀려 반란군은 홈스와 수도 외곽과 이들을 상실했다(Human Rights Watch, May 4 2012). 정부군은 자신의 통제지역과 반군의 통제지역을 구분하여 반란군 지역에 대해 공군력과 미사일을 사용하여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냈다.

2013년 초반에 반란군은 요르단을 통해 사우디에서 제공한 개량무기들을 이용하여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다엘지역을 3월말에 확보하였다. 3월말 북부 라카(Raqqa)지역이 반군 이슬람 과격주의자에게 점령되었다. 6월 중순 정부군과 헤즈볼라 군이 중요 전략요충지인 꾸사이르(Qusayr)를 점령하였다. 정부군의 꾸사이르 점령은 반란군과 미국, 순니국가 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점령은 시리아, 이란, 헤즈볼라의 승리를 의미하며 헤즈볼라가 타국 문제에 무력 개입한 첫 사례가 된다.

정부군은 주로 알라위 4기갑사단, 특공대, 공화국 수비대, 샤비하(Shabiha)민병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생사고락을 같이할 운명을 맞고 있다. 정부군은 공군력과 미사일 그리고 기갑사단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에 집중 배치하여 이 두 곳의 사수를 시도하고 있다.

알라위는 오론텔스(Orontes)강 서부에 알라위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

악의 경우 알라위 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MERIA Vol. 16 2012). 이 지역은 러시아 함대 기착지인 타르투스 (Tartous)를 포함하고 있다. 고도로 훈련된 5,000여 명의 헤즈볼라 부대가 아사드 정권수호에 대비하고 있다(Rubin, 6 May 2013). 이란은 시리아 정 권유지를 위해 160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Gambill, May7 2013).

아사드는 반란 초기에 그의 민족주의와 반 이스라엘 정책이 그를 반란으로 부터 구조할 것이라고 오관했다. 반란의 뿌리는 사회불만 세력에 대한 그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반란은 농촌 빈곤층, 교육받은 도시 실업자를 포 함한 30%가 넘는 실업자, 연 2.5%가 넘는 인구증가,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농부들의 이직과 가축도살, 도시 빈민층 형성 등 당면 현실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주의 경제구조에 익숙해진 국가경제를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저소득층 불만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아사드는 알라위를 중심으로 기독교, 드루즈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 외적으로 이란, 러시아, 헤즈볼라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면서 잘 버티고 있 으나 인적충원문제의 어려움을 맞고 있다. 아사드는 2014년 5월에 있을 대통 령 선거 시까지 버티는 시간벌기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아사드는 지난 5월 1일과 4일 두 차례 모습을 드러내고 정부가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2) 아사드와 소수파

시리아는 생존위협에 직면한 소수 종파의 최고 ‘안전지대(safe haven)’로 알려지고 있다(Reuters, Feb 23 2010). 시리아 소수파는 알라위, 기독교, 두 르즈, 쿠르드로 총 인구의 3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테로 시리아 내전은 알라위 바이스 당 정권에 대한 순니의 무력투쟁이다. 이 틈바

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알라위 정권을 지지하는 종파가 기독교와 드루즈이며 쿠르드는 알라위 정권 생존 시에 자치권 내지는 독립을 위해 중립을 지키면서 쿠르드 영역을 방어하고 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점령 후 시작된 무슬림들의 박해를 피해 수십만 명의 기독교도가 시리아로 피난했으며 이집트에서도 무슬림들의 콥트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 아사드는 타 아랍지역에서의 이러한 소수종파 박해를 전하면서 아사드 정권의 소수파 관용정책을 내세워 국내 소수파 결집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정권안보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반란 세력들이 1000여명의 기독교도들을 살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 내의 소수종파들은 순니 집권 시에 자신들에게 불어 닥칠 무슬림들의 박해에 대한 공포감을 버릴 수 없다.

알라위 정권의 외교부 관료는 모두 360명인데 이중 65%를 알라위가 점하고 있으며 순니는 10%를 점하고 있다(*BBC Monitoring International Reports*, Nov. 17 2011). 이는 알라위가 아사드 정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시리아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정책을 써 왔다. 이라크에서 핍박을 피해 피난 온 이라크 기독교도들을 수용한 후 더 호의적 태도를 나타냈다. 시리아에 거주하는 1백만 이라크 난민 중에서 기독교도가 40%를 차지한다 (Fact Finding Mission Report, Oct. 2007; 9). 2011년 아사드는 그리스 정교회 출신인 다우드 라지하(Daud Rajiha)를 국방장관에 임명하였다 (Sabbagh, *Syrian Arab News Agency*, 8 Aug. 2011). 다니엘 파이프(Daniel Pipes)는 아사드가의 기독교정책에 대해 “알라위는 무슬림들보다 기독교도들에게 더 우호 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Daniel Pipes, *Middle Eastern Studies* 1989).

시리아 내 기독교도는 활발한 공동체를 이루고 주요 도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기독교도는 그리스 정교회, 마론파, 시리아 정교회, 가톨릭, 신교,

아르메니아 가톨릭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독교들의 경제적 파워는 상당하여 아사드 정권에게 재정지원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바논의 드루즈 지도자 왈리드 줌불라트(Walid Jumbulat)는 시리아 반란 1주년을 맞아 반란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시리아 드루즈는 바샤르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드루즈 출신 31-100여 명이 반란군에 대항하여 아사드 정권을 위해 싸우다 전사했다(Bassam, <http://english.al-akhbar.com>). 아사드는 정부군이 승리한 후 드루즈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드루즈의 지지를 유도했다. 주요 드루즈 인사들이 반란군지지를 선언하자 아사드는 드루즈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했다.

드루즈는 독특한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드루즈 민족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지 않고 아라비즘(Arabism)을 수용하고 있다. 일부 지도부의 반란군 지지성명에도 불구하고 드루즈는 실용주의를 택하여 정부군을 지지하고 있으나 반란군 승리가 예상되면 반란군 지지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즈는 현재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다.

터키와 이라크의 쿠르드가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반면 약 200만에 달하는 시리아 쿠르드는 몇 개의 비 인접지역에 거주한다. 시리아 쿠르드의 거주분포를 보면 쿠르드 다가(Kurd Daga)로 알려진 알레포 북서쪽 고원지대에 약 30%, 유프라테스강 유입지역인 아인 아랍(Ain al-Arab, Kobani)지역에 약 10%, 자지라 주의 북동부에 약 40%가 거주하며 나머지는 다마스쿠스 근교 아크라드(Akrad)에 거주한다(Gambil, Vol.6. Apr 2004).

프랑스는 위임통치기(1920-1946)에 쿠르드에게 정치활동, 쿠르드어 도서 출판 등을 허용했다. 다수와 순니 아랍을 불신한 프랑스는 쿠르드, 알라위, 기독교 등 소수와 중에서 많은 수의 군을 충원하였다.

1956년 아랍민족주의를 주창하면서 순니 정권은 쿠르드 소수족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순니 정권은 쿠르드어 교육금지, 쿠르드 미디어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쿠르드 중심부인 카라 슈크(Qarah Shuk, 1956), 슈웨이다

(Suweidiyah, 1959)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정부는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을 두려워하여 쿠르드를 억압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정부는 자지라주 대한 특별인구조사를 실시하여 1945년 이래 시리아 거주를 증명을 할 수 없는 12만 쿠르드의 시민권을 취소했는데 이는 쿠르드 인구의 20%에 해당했다(Lynch & Ali, Refugees International Feb.14 2006.)

2011년 봄 이전까지 약 16만 쿠르드가 신분증에 외국인등록자(ajaanib)로 분류되어 투표권, 사유재산권, 공무원 피임용권 등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군 복무는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등록자(maktuumiin)로 명명되는 7,5000명이 신분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결혼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1960년대 바이스 당 정권의 토지개혁은 쿠르드 전통엘리트의 경제력을 파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쿠르드 공동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시리아 토지개혁에서 몰수된 전국 농토의 43%가 쿠르드 밀집 거주지역인 자지라 주에 속해 있었다.

1963년 집권한 신 바이스 당 정권은 민족주의를 주창하면서 쿠르드에 대한 차별정책을 증대시켰다. 바이스 당 정부의 쿠르드에 대한 정책은 시리아 공공생활에서 쿠르드의 존재를 말살시키는 것이었다(Ziadeh, Special Report220, 2009; 2)

1970년대 초 하피즈는 쿠르드어로 된 지역 명을 아랍어 명으로 고치게 하고 쿠르드 지역에 수천 명의 아랍 족을 이주시켜 이 지역을 아랍벨트(al-Hizaam al-'Arabi)로 명명했다. 정부는 쿠르드에게서 몰수한 토지를 아랍 이주자들에게 제공하고 신식 병원, 학교, 기타 편의 시설물 등을 제공했다.

하피즈는 이라크 바이스당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라크 쿠르드를 지원하는 한편, 프랑스가 위임통치기에 시리아 영토이었던 알렉산드렛타(Alexandretta, Hatay 주로도 명명됨) 주를 터키에게 넘겨준 것에 대한 반환

을 요구하면서 터키 쿠르드 노동당(PKK)을 지원하였다.

하피즈는 쿠르드에게 군 면제 특혜를 주면서 시리아 쿠르드의 PKK 무장 참여운동을 지시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쿠르드 부족지도자들에게 무장운동참여자를 강제로 할당해 동원케 했다. 터키 정보국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시리아 쿠르드군이 PKK 무장단의 25%를 차지하였다.

1998년 터키는 하피즈의 PKK지원에 항의하여 시리아 국경에 7만 군대를 동원하여 시리아에 대한 공격위협을 가했다.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의 중재로 하피즈는 PKK지도자 오잘란을 시리아에서 추방하고 PKK에 대한 지원 중단을 약속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2004년 3월 12일 아랍족 축구팀 팬들이 각목과 칼을 휘두르면서 친 사담 후세인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아랍팀이 카미실리(Qamishli) 축구장에 입장하였다. 이에 맞서 쿠르드팀 팬들이 미국의 부시를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다. 양측 간 난투극이 벌어졌고 보안군이 쿠르드 관중들에게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3명의 어린이가 압사했다.

시위 8일째 진압군은 탱크들을 시위지역에 보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시위에서 40명(쿠르드 33, 아랍인7)이 사망하고 400명이 부상했으며 2000명이 체포되었으나 대부분이 석방되었다. 정부는 언론메체를 이용하여 쿠르드 시위를 외부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홍보하는 한편 이슬람 사원의 설교자들 역시 같은 말을 했다.

2009년 여름 위키리크스(Wikileaks) 보고에 의하면, 쿠르드 지역은 계속되는 가뭄, 실업, 경제난, 문화차별, 불법체포, 정치적 억압, 의문사 등을 6개월 동안 겪었다 (*Wikileaks*, Aug 2009). 2010년 후반 인권감시단의 보고에 의하면 바샤르의 대 쿠르드 정책은 그의 부친 하피즈 정책에서 변화되지 않았다(Black, *The Guardian*, July 16, 2010).

2011년 초, 쿠르드의 반정부 항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아사드 정권에 대한 반란이 시작되자 아사드는 쿠르드의 어떤 요구도 수용할 것이라

고 천명했다. 정부는 쿠르드에게 토지 몰수법 49조 폐지, 시민권부여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al-Ibrahim, *Syrian Arab News Agency*, June 22, 2011, Badran, *NOW Lebanon*, Jan 26, 2012). 쿠르드는 만일 아사드 정권이 유지되면 그들에 대한 약속들이 실행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현재 쿠르드 민족연합당(Democratic Union Party;PYD)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정당이며 터키 쿠르드 노동당(PKK)으로부터 조직, 훈련, 무장을 지원 받고 있다. 2012년 7월 정부군이 쿠르드 지역에서 철수 하자 정부청사를 접수하여 쿠르드 깃발을 내걸고 쿠르드 자치권을 선전하고 있다. 쿠르드연합당은 정부군에 대한 저항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인 마수드 바르자니(Masud Barzani)의 쿠르드 민주당(KDP)의 지원을 받는 2011년 10월 조직된 쿠르드 민족회의가 있다. 이 민족회의는 소수 정파들의 연합체로서 내부 분열과 무장조직의 결여로 별다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Middle East Report N 135 Jan.22 2013). PYD는 시리아 자유군(FSA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시리아 쿠르드는 이라크, 터키 쿠르드처럼 거주지역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응집력이 약하다.

아랍지역에서 일어나는 무슬림들의 소수파에 대한 핍박을 보면서 시리아 내의 소수파들은 다수파 순니가 정권을 잡았을 경우 자기들에게 불어 닥칠 위기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아사드는 내전 속에서 기독교파, 드루드파, 쿠르드족들에게 여러 약속을 하면서 정권유지 수단으로 소수파를 이용하고 있다.

바샤르는 알라위 거점지역인 북서부를 장악하여 레바논 국경을 따라 헤즈볼라와 연결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일부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바샤르 정권은 이미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채 한 점령 집단으로 전락하였다.

2. 반란세력

제 2장 다층적 갈등구조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시리아 내전 해결의 주요 전제는 내전이 안고 있는 국내외적 의미와 정치, 군사적 구성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 구성자는 아사드 정권, 외세의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받는 반란군, 정권교체를 위해 반란군을 지원하는 이해 당사국들이다.

1) 민족연합

2011년 11월 앙카라에서 조직된 시리아 민족회의(The National Council of Syria: NCS)는 수백 개의 해외 망명 투쟁세력의 집합체로 터키 집권당의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직은 무슬림 형제단, 일부 쿠르드 분파, 세속주의 좌파 및 우파, 지식층, 반체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Oct24.2012 snbc.me).

시리아 민족회의는 외교적 주도권을 거부하고 무장화를 채택하였으나 국내 지방지도자들을 통합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인정과 재정지원을 기대하여 지도부와 분파들은 공통의 기치 하에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분열했다(Sayigh, April3 2013). 반란군은 수백 개의 무장조직으로 분열되어 있고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Miles, Washington Post. May14 2013)

이 조직의 주도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이 아사드와의 협상에 적극 반대하자 시민지지 세력들은 이 조직이 해외에 주둔하면서 실전에 참여하지도 않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이탈하기 시작하자 미국과 카타르가 이를 완화시키려고 시리아 민족연합(The Syrian National Coalition of Revolutionary and Opposition Force : SNC, 약칭 민족연합)을 조직하여 2012년 11월 시리아 민족회의(SNC)를 이에 통합했다. 시리아 민족회의와 민족진영(National Bloc)이 민족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형제단은 구 SNC를 주도하고 민족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무스타파 알삼바그(Mustafa

al-Sabbagh가 민족진영을 주도하고 있다.

모아즈 알카팁(Moaz al-Khatib)이 새로 발족한 민족연합의 의장이 되었으나 그는 국가 분할을 우려하여 반란군 점령지 하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망설였다. 알카팁은 민족화해 회의를 소집하여 시리아의 미래 통치형태를 논하고 국민투표 실시, 선거, 신정부 구성, 대사면 등을 주장하였다. 형제단은 이러한 주장이 아사드에게 긍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와 의장의 주장은 반란군 전체의사를 무시한 것이라 비난했다. 정부군에게 대화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알카팁의 제안에 적극 반대했다 (Seale 5 Feb. 2013). 알카팁의 사직에 뒤 이어 임시정부 수상인 가산 히토 (Gassan Hitto)가 의장이 되었다. 부의장에 리아드 세이프(Riad Seif)와 수하이르 알 앓타시(Suhair al-Attasi)가 임명되었다.

민족연합은 아사드 정권전복을 위해 싸우는 혁명전사들을 지원하고 시리아를 민주주의 다양성의 시민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족연합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 가) 절대적인 국민주권과 독립
- 나) 시리아 민족의 통합유지
- 다) 도시와 농촌에서 통합유지
- 라) 정권전복, 보안군 해산,
- 마) 정권과의 대화나 협상거부
- 바) 시민 민주시리아 약속유지(BBC April 23 2013)

아랍연맹에서 시리아국가 회원자격을 얻었고 EU, 미국 등으로부터 임시정부로 인정받은 민족연합은 반란군 점령지역인 해방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행정, 기본 대민서비스, 분쟁해결, 보안 등을 수행하고 있다. 민족연합은 임시정부로 출범하기 위해서 최소한 해방구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에 인구 1천만 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ayigh March 28 2013).

임시정부는 향후 아사드 정권과의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민족연

합은 전략적 정치적 발취, 지방행정권부여, 반란군에 대한 신뢰할 만한 권위 확립, 인도주의적 구조, 아사드 정권을 분열시킬 정치전략 고안책 등을 마련 하는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3년 3월24일 알카탑의 의장직 사직 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민족연합이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시리아 친구들(the Friends of Syria)이 민족연합을 돕기로 약속하고 2012년 12월 중순까지 1억4천5백만달러를 약속했으나 3개월이나 지난 후 850만 달러를 기부했다.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비용은 5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나 후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민족연합의 행로를 방해하고 있고 민족연합의 위기관리 능력 여하에 따라 이해당사국들의 지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 자유시리아군(FSA)

자유 시리아군은 2011년 여름 정부군에서 이탈한 군, 군 장교들 그리고 예비역들로 조직되었다. 공식적인 사령관은 리아드 알아사드(Riad al-Asad) 전 공군대령이다. FSA의 본래의 목적은 시위대 보호에 있었으나 정부군의 무력진압에 대항하여 무력조직으로 변형되었다. FSA는 정부군 탈영병 충원에 성공하지 못해 터키, 이집트, 카타르에서 무슬림형제단원으로 충원하고 있다. 2012년 6월 시리아 출신 FSA는 3천명 미만이었으나 리비아 과격주의 전투단 및 기타 외국인부대가 합류하여 2012년 6월 말 7만 군대로 성장했다 (Lehmann Oct.24 2012 nsbnc.me). FSA는 터키 난민수용소에서 주로 충원되며 터키, 미국, 카타르, 영국, 사우디 등의 특별부대로 보완되고 있다.

FSA는 알레포, 이드립, 홈스, 다마스쿠스 외곽 등을 통제하는 지휘조직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총사령부 구성에 실패했다. 이들 일부는 형제단 휘하에, 다른 일부는 사우디와 터키 교관 휘하에, 또 다른 일부는 알카이다 휘하에 소속됨으로써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지 못했다(Aug. 2012 ;Chatham

House.org.). 또한 미숙련 훈련 자원군과 과격주의자들이 대량학살, 약식재판에 의한 즉결처형, 강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자 이에 회의를 느낀 자원군들이 대거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FSA는 국제 인권기구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과격주의자들이 많은 시민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국민화해 회의(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NCC)

2011년 9월 조직된 단체로 13개 좌파정당, 3개 쿠르드 정당, 정치행동주의자,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란군 베테랑 후세인 압들 아짐(Husein Abdul Azim)이 의장으로 있다. NCC는 거리에서 정부군 철수 후 대화, 평화적 시위에 대한 보안군공격 중단, 정치범 전원사면, 외세 개입 반대 등을 내 세우면서 범국민 간 화해를 주장한다.

3. 이해당사국들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이해 당사국들의 무력개입을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국들은 시리아 위기에 대처할 좀 더 나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순니 걸프국들의 정책 목표와 미국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1) 미국의 전략

레흐만(Lehmann) 박사는 시리아 사태를 정치 지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2007년 이란과 카타르의 걸프만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의 파르지역(Far field) 천연가스 발견으로 미국의 세계 주요 에너지자원 지배계획이 위협 받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석유달러 지배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2007년 이란-러시아-이라크-시리아는 100억 달러를 들여 이들 국가를 관

통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합의했다. 이 파르 파이프라인은 다마스쿠스 외곽까지 건설되었고 지중해 해안 타르토스로 연결될 계획이다.

현재 EU는 러시아 천연가스 중 22-26%를 소비하고 있고 러시아가 시리아 연안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되면 EU는 러시아로부터 향후 100-120년 간 45-50%의 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EU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카타르, 사우디와 제휴하여 러시아-시리아-이란-EU에 대항하는 도박을 하게 된다(Lehmann, Dec.28 2012 nsbnc.me). 이러한 관점에서 시리아의 정권교체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시각이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중동전문가들은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선택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SNC에 적극 개입하여 효과적인 임시정부로 발전하도록 돕고 SNC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걸프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분쟁의 효과적 평화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반란군에 대한 무기와 재정지원을 통해 차후 협상이나 정권퇴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내전해결을 위해 좀 더 단호한 정책을 펴지 않고 조심스런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란군들에게 제공된 무기들이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전달될 것을 경계하여 무기공급을 못하고 있다. 실제로 무거나 인도적 구호금의 상당수가 각 분파들에게 임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이 인접국들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가 되거나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극도의 잔학행위들이 자행될 경우 미국은 단호한 부분적 개입정책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기본 생각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방식이다.

2) 걸프국의 전략

사우디와 카타르의 시리아 내전 개입은 제 2장에서 언급한 순니와 시아의 대결에서 시아 정권을 순니 지배국가로 변형시킴으로써 시리아-이란-헤즈볼라의 삼각동맹 체를 와해시켜 걸프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데 있다(Apr. 2013, Chatham House.org).

시리아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전개됨에 따라 걸프 국들은 서로 다른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걸프 국들 간 뚜렷한 차이는 시리아 내의 무슬림형제단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사우디와 UAE는 형제단의 역할에 반대하고 카타르는 시리아 내의 형제단 역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사우디와 UAE는 시리아에서 이슬람주의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경계한다.

2007년 카타르는 터키의 AKP 정부에 백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무슬림형제단 세력을 키워 아랍의 봄과 시리아 위기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ehmann Oct.28 2012 nsbnc.me).

3) 터키의 전략

2011년 터키는 아사드 정권과의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아사드 정권 붕괴를 위해 반란군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패하고 오히려 터키가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5월11일 터키의 경계선 레이한리(Reihanli) 지역에서 친 아사드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가 일어나 51명이 사망했다. 하타이 주에 50만 명의 알라위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곳 알라위를 중심으로 터키 정권의 안정을 위협 할 수도 있다. 터키는 안정된 국가로 외국의 투자가 확대되었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터키를 선진 20위 국가에 진입시켰다. 국가 안정을 위해 그리고 내년 2014년 선거를 위해 에르도간(Erdogan) 정부는 숙적인 터키 쿠르드노동당(PKK)과도 화해해야 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해서 오마바와 회담했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터키경계선을 따

라 시리아 북부에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여 반란군 점령지역을 보호하고 터키 안정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러시아의 전략

시리아에 대한 국제개입 가능성으로 미-러의 심도 있는 대화가 부재했었다. 그러나 최근 캐머런 영국수상이 푸틴과 시리아에 대해 회담하고 존 케리 국방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시리아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의 아사드 정권지지는 첫째, 경제적 이유에 있다. 2007-11년 사이 러시아는 시리아 무기 수입의 78%를 차지했고 벨라루스(Belarus)는 17%를 차지했다. 시리아는 러시아와 그 위성국들로부터 95%의 무기를 수입한다. 또한 러시아의 대 시리아 투자는 2009년 19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Spyer, May 13). 둘째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이익에 있다. 러시아 해군기지로 시리아 지중해 항구 타르투스(Tartuos)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군의 홍해, 대서양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반란군과 러시아 간 불편한 관계 때문이다. 반란군은 미래에 러시아와 어떤 관계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넷째, 러시아는 1999-2009년 사이에 체첸반군과 싸웠다. 아사드 정권 붕괴로 시리아 과격주의자들의 승리는 테러분자들의 체첸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푸틴은 확신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 붕괴 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라크나 아프간에서처럼 시리아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 유지와 함께 위기해결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려고 한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국제 무력개입을 방어하고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시리아에 정밀 지대공 미사일과 신무기들을 제공하고 있다. 서방측의 항의에 대해 러시아는 과거에 있었던 무기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러한 무기거래가 장차 이 지역불안정을 초래할 가

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영-리, 마-러 간 형식적 회담의 배후에는 양측 모두가 앞으로 일어날 확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벌기 전략으로 보인다(Lehmann, May9 2013).

아사드 정권의 생존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면 러시아는 아사드에게 예멘의 살레흐(Saleh)식 하야를 요구할 수 있으나 아사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는 이해 당사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시리아에서의 자국의 이익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러시아가 묵인하는 대신 시리아에서 아사드와 그의 측근들에게 살레흐식 하야에 동의하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시리아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발아래 이란 핵이 놓이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과거 알라위-순니 간 갈등, 이랍-쿠르 간 갈등은 아랍의 봄을 맞이하여 각자의 이익을 위한 이익갈등 무력투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한 주요변수로 주변국들과 강대국들이 등장했다. 따라서 국내 갈등해결은 이해 당사국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으며 갈등이 평화적이고 포용적이고 균등하게 해결 된다 해도 국내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드 전략은 서방의 행동을 읽고서 결정되어 왔다.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에 대한 결의가 무산되자 아사드는 정부군의 반군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정당화한 것으로 보여 진다. 2012년 8월 오바마의 화학무기에 대한 레드라인(redline)설명은 재래식 무기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보여 졌다. 최근 제다 이테(Jdaideh)와 바니아스에서 자행된 학살에 대한 국제적 행동의 부재는 아사드의 눈에는 국제적 형벌의 면제로 비춰지고 있는 듯하다. 반란군은 사분오열 속에서 불능상태에 빠져있고 이해당사국들은 시간을 벌면서 다음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

IV. 시리아의 미래와 갈등해결 전망

아사드 정권은 현재 국내에서 100-150만의 관료, 200-250만의 바이스 당원, 250-300만에 달하는 알라위파, 기독교파, 드루즈파의 지지, 그리고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에 거주하는 재계 및 중산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아사드 정권이 단기적으로 붕괴될 전망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이 장기간 유지될 거라 보기는 어렵다.

다마스쿠스는 유령의 도시로 변했고 시민들조차도 테러의 공포와 정권의 생존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사드의 부인과 자녀들은 이미 UAE로 피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권 수뇌부의 가족들도 해외로 피신해 있다는 소문이 있다(Khatham House Jan.12 2012).

아사드 정권이 반란군에 의해 붕괴 될지 외세의 개입으로 패할 지, 또는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로 패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사드 정권이 반란군이나 시민에게 잔학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한다면 유엔은 개입압력을 받을 것이고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리아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와 갈등 해결전망은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다.

(1) 현 정권이 생존할 경우 인데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걸프국과 터키를 비롯한 주변 순니 국가들이 시리아 순니에 대한 지원으로 내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시리아의 여러 환경으로 비춰볼 때 내전은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파들 간 갈등과 원한이 더욱 깊어져 시리아의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아사드 정권의 생존은 시리아의 고질적 갈등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이 질 것이다.

2012년 1월 도하 토론(Doha Debates)이 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

자의 55%가 아사드 정권의 생존을 원했다(al-Gharbi, 2013; 59). 카타르가 반란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조사는 신뢰성이 있다.

(2) 아사드가 개혁을 반란세력에게 이양하고 아사드 정권이 생존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예상은 민주주의 선거제도 마련,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서 화합의 길을 가는 방법이지만 하나 반란세력이 이를 수용할 지가 의문이며 각 정파의 정권야욕과 지분싸움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통합을 위해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수립이 바람직하다. 권위주의 정권은 각 정파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공정한 국정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묵은 갈등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갈등해결의 열쇠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절대적 신임에 있다.

(3) 알라위 정권 지도부가 정권을 포기하고 망명하는 방법으로 예멘의 살레흐 대통령 하야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아사드기와 그의 주변부 권력층들이 면죄부를 받고 이란이나 러시아 등지로 망명하는 시나리오이다. 순니 국가들이 바라는 방식이나 이 경우 연립정부 구성이나 대규모 종파전쟁이 일어나 대량학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주변 산유국들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아랍연맹, 유엔, 미국 등의 절대적인 질서유지 및 종파 간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되어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적극적 안정화정책이 나와야한다.

(4) 리비아 식 시나리오로 국제 무력개입을 통해 반군이 승리한 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다종교, 다 종족 사회로 뿌리 깊은 종파 간 갈등의 골이 민주국가 수립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민주정권은 얼마가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시리아는 민주주의 경험을 갖지 못했고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했으며 반세기 군부독재로 인한 폭력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대화와 타협보다 폭력을 선호함으로써 정치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고 국가는 경제위기극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

(5) 국제군 도움을 얻어 반군이 승리한 후 이슬람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하

는 것이다. 이슬람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은 세속주의 세력과 시아파, 기독교, 쿠르드로부터 반 신정국가 저항을 야기할 것이며 종파 간 갈등과 정치 불안이 지속 될 것이다.

(6) 종파, 종족으로 국가가 분할되는 시나리오로 국가 분할은 순니파 국가, 알라위-기독교-드루즈 국가, 쿠르드 자치국가로 3분할 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이다. 최근 알라위가 지배하는 해안에서 순니 거주지역에 대한 인종청소가 자행되었다는 보도가 있다(Pierini, May 14 2013). 이것은 아사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독립된 알라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도 있다.

만일 내전이 악화되어 종파 간 살육전이 전개되면 수많은 인명손실이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중재로 우선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잠정적 3분할을 고려하는 것도 현 상황으로 볼 때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시리아 내부의 뿌리 깊은 고질적 갈등을 생각하면 이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도 있다.

시리아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시리아의 미래를 위해서 국내 반란군 세력들이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 국가건설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시리아의 종파 간, 이념 간 역사적 갈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쉽사리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공정한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의 화해의 노력과 공정한 권력배분 그리고 종파에 대한 충성보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정착 될 때만이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반군지도부의 권력재편 과정에서 권력투쟁이나 이념 투쟁에 빠지지 않고 적대적 세력들도 포용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권력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V. 결 론

시리아는 다종파, 다민족 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반세기 이상 서로 다른 정체성을 누리며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았다. 프랑스의 시리아 국민 분열정책과 소수 알라위 정권의 권위주의 체제는 내적으로 종파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시리아 내전은 여러 가지 다층적 양상을 띠고 있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세력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내전 관련 당사국들의 평화정착의지가 요구된다.

바샤르 정권 붕괴 후, 다수와 순니정권은 알라위파와 기독교도에 대한 대량살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알카이다와 연계된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소수종파에 대한 인종청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시리아는 더욱 불안정한 국가로 전락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마련책을 수립해야 한다.

바샤르의 정권 붕괴는 현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과 헤즈볼라 및 이슬람과격주의자들의 대량살상무기 탈취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어느 정권이 탄생하든 테러로 인한 혼란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시리아의 혼란지속과 일백 오십만 시리아 난민의 인접국 유입은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터키 등에 정치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를 틈타 이슬람 과격주의 세력이 인접국에 침투하여 국가혼란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리아가 안고 있던 국내갈등은 민주화 운동 이전이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에도 종파 간 갈등은 반란세력과 이해당사국들의 노력에 따라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단기간의 갈등은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민주화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민중의 새로운 각성으로 계층 간, 정치세력 간, 종파 간, 종족 간 이익갈등이 심화되어 테러와 혼란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 주제어 : 아사드, 시리아, 미국, 시리아 내전, 바이스, 쿠르드, 알라위, 순니, 시아

• 참고 문헌 •

- Ajami, Fouad, (2011), *The Syrian Rebellion*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p. 10.
- al-Gharbi, Musa (2013), Syria Contextualized: The Number Game, *Middle East Policy* Vol. XX, No. 1, Spring.
- Hinnebush, Raymond (2001), *Syria: Revolution from Abo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uman Right Watch (2009), *Far From Justice: Syria's Supreme State Security Court*. 1-56432-434-6, Feb.
- _____ (2007), *No Room to Breathe: State Repression of Human Rights Activism in Syria*. Vol., 6, No. 6(E), Oct.
- Gambil, Gary C. (2004), The Kurdish Reawakening in Syria, *Middle East Intelligence Bulletin*. Vol. 6, No. 4, April.
- George, Alan (2003) *Syria: Neither Bread nor Freedom* (London: Zed Books) p. 2.
- Haklai, Oded (2000), Minority Rule over a Hostile Majority, Syria,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Vol. 6, No. 3.
- Lowe, Robert (2006), *The Syrian Kurd: A People Discovered*, Chatham House, MEP BP 06/01, Jan.
- Lynch, Mauren and Ali, Peveen (2006), 'Buried Alive: Stateless Kurd in Syria', *Refugees International*, Washing D.C., Feb. 14.
- Maoz, Moshe and Yanin, Avener (1986) ed. *Syria Under Asad*. London and Sydney, Croom Helm.
- Pipes, Daniel (1996), *The Alawi Capture of Power in Syria*, <http://www.danielpipes.org/191>.
- Robinson, Glenn E. (1998), Elite Cohesion, Regime Succession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Syria, *Middle East Policy*. Vol. 5, Jan.
- Rubin, Barry (2007), *The Truth about Syr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haj, Anthony (2005), Inside and Outside Syria, a Debate to Decided the Future, *Washington Post*, Nov. 9.
- Spyer, Jonathan. (2012), Syrian Regime Strategy And the Syrian Civil War,

MERIA Journal Volume 16, Number 03 (Fall).

Talhamy, Yevette(2009), The Syrian Muslim Brothers and The Syrian-Iranian Relationship, *Middle East Journal*. Middle East Institut. Vol.63, No.4, Autumn.

Teitelbaum, Joshua(2004), The Muslim Brothers and the 'Struggle for Syria', 1947-58, *Middle Eastern Studies*, Vol.40, No.3, May.

Wakis, Seth(2007), Battling the Lion of Damascus: Syria's Domestic Opposition and Asad Regime: Policy Focus#69' in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Warren, Torstein Schiotz(2007), Fear and Resistance ; The Construction of Alawi Identity in Syria, *Master Thesis*, University of Oslo, Feb.

Ziadeh, Radwan(2009), The Kurd in Syria: Fueling Separatist Movements in the Region, *Special Report. 220,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April.

인터넷 자료

Alkantar, Bassam "Jumblatt and the Druze of Syria," *al-Akhbar*, <http://english.al-akhbar.com/content/jumblatt-and-druze-syria>.(2013년5월 3일 검색)

<http://www.reuters.com/article/2010/06/09/us-syria-christians-idUSTRE6582CQ20100609>.(2013년 5월6일 검색)

al-Ibrahim, Raslan(2011) "Interior Ministry: 37,133 Applications for Syrian Citizenship," <http://www.sana.sy/eng/21/2011/06/22/354156.htm>. Also see, Tony Badran, "Kurds and Sway," *NOW Lebanon*, January 26, 2012, <http://nowlebanon.com/NewsArchiveDetails.aspx?ID=357242>. (2012년 12월29일 검색)

BBC *Monitoring International Reports*(2011), "Syrian Official Says Administration to Collapse in Six Weeks - Turkish Daily," <http://trove.nla.gov.au/work/159121721>.(2013년5월7일 검색)

Black, Ian (2010)"Syrian Human Rights Record Unchanged Under Assad" <http://www.guardian.co.uk/world/2010/jul/16/syrian-human-rights-unchanged-assad>.

- Chatham House (2013) *Syria: International Responses to a Growing Crisis*, Chatham House.org (2013년 4월18일 검색)
- (2012) *Syria: Prospects for Intervention*. Chatham House.org.(2013년 5월1 일 검색)
- (2013) *Syria: International Responses to a Growing Crisis*, Chatham House.org (2013년 4월28일 검색)
- Goldman, David P (2013), “Russia's new Middle Eastern role”, *Asia Times*. <http://www.meforum.org/3528>(2013년 6월10일 검색)
- Human Rights Watch(2012) “They Burned My Heart: War Crimes in Idlib During Peace Plan Negotiations,” May 4 <http://www.hrw.org>.(2013년 3월27일 검색)
- Kurd-Net (2011) Syria to Tackle Kurds’ Citizenship Problem,” <http://www.ekurd.net> (2012년 11월28일 검색)
-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3), Syria Kurd: A Struggle Within a Struggle. www.internationalgroup.org(2013년 5월 1일 검색)
- “Interview with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January 31, *Wall Street Journal*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3833204576114712441122894.html>. (2013년 5월 9일 검색)
- Lyon, Alistair(2010) “Christians View Syria as Haven in Unstable Region,” *Reuters*
- Pierini, Marc,(2013) Can Russia and the West End Syria Chaos? May 14 <http://carnegieendowment.org>(2013년 5월14일 검색)
- Sayigh (2013) <http://carnegieendowment.org> (2013년 5월2일 검색)
- (2013), The Syrian Opposition's Leadership Problem <http://carnegieendowment.org>(2013년 5월2일 검색)
- Lehmann (2012) *The Dynamics of the Crisis in Syria. Conflict versus Conflict Resolution*. nsbnc.me (2013년 4월10일 검색)
- Sabbagh, H(2011) “President al-Assad Issues Decree Naming Gen. Dawood Rajiha Defense Minister,” *Syrian Arab News Agency*, August 8 <http://www.sana.sy/eng/361/2011/08/08/362917.htm> (2013년 5월6일 검색)
- Seale, Patrick.(2013); agenceglobal.com (2013년 4월6일 검색)

Syria Comment (2011) “Speech to the Syrian Parliament by President Bashar al-Assad,” <http://www.joshualandis.com>.(2013년 1월21일 검색)

Wikileaks (2009), “Six Month Check-Up: Kurds Ailing but Politically Motivated” <http://wikileaks.org/cable/2009/08/09DAMASCUS620.html>.(2013년 4월 6일 검색)



이종택

소 속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이메일 jong@mju.ac.kr

논문접수일	2013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3일